

다같이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

2019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실습과정 기록

김성림 김영곤 김용욱 김정운 김태권 김진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기록한 순서

I.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근 · 김용옥 · 김정윤····· 001

첫 번째 공부모임

두 번째 공부모임

세 번째 공부모임

네 번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 067

II.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근 · 김용옥 · 김정윤····· 072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 099

III. 기관방문 기록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다녀온 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근 · 김용옥 · 김정윤····· 107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 118

IV.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 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근 · 김용옥 · 김정윤····· 124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 140

V. 에필로그 : 예비 사회복지사를 응원하는 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배은정 과장 ······ 144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정유정 과장 ······ 146

I.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곤 · 김용욱 · 김정윤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첫 번째 공부모임

사례관리, 욕구, 초기면접

사례관리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알았던 개념이었지만, 복지 당사자가 욕구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사례관리는 김치를 먹고 싶어 하는 대상자에게 맛있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배추를 주고, 소금 등의 재료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의 세 가지 속성, 개별성, 다양성, 지속성에 대해 잘 이해했고 이 세 가지는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될 만큼 중요한 속성입니다. ‘사례관리’는 결코 ‘사람관리’가 아닙니다. ‘사례관리’는 욕구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서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인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 대상자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마치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¹⁾

당사자의 욕구와 사회복지사의 욕구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욕구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욕구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두 명의 욕구

1)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9 푸른복지, 2018

가 맞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합의를 봐야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기면접을 읽으면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상자를 대하는 눈빛, 진정성 있는 행동, 말투 등을 통해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꼭 도움이 되어주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나서

사례관리는 제가 정말로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단어 뜻만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사례관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좋은 기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은 첫 번째 스터디 모임은 힘들었습니다. 스터디 모임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각자 공부해 온 것을 같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실습생들과도 친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사례관리’ 라는 생소한 주제로, 해본 적 없는 스터디 모임을 하려고 하니, 정말 말이지 어색함의 극치였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 모임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모임이 끝나고 내 안에서 약간 혼란스러움이 왔습니다. ‘갑자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4년 넘게 사회복지와 거리가 멀었고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진로에 관한 뚜렷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실습 초기지만, 매주 실습을 할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부모임

자원, 사례회의, 기록

‘자원’은 복지 당사자의 욕구 해결에 필요한 수단입니다.²⁾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며 이런 자원을 만들거나 찾아 활용하게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자를 위해 따로 만든 특별한 자원으로 돕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약자를 위해 따로 만든 특별한 자원으로서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위해 별도의 자원을 만들 때도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충족해야 별도의 자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충분히 별도의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원과 공식 자원과 특

2)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26 푸른복지, 2018

별한 자원으로 이루는 때도 있지만, 평가를 통해 조금씩 당사자의 자원과 비공식 자원과 평범한 자원으로 이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자원으로 이루게 됐다면 종결을 합니다. 근데 왜 당사자의 차원으로 이루게 됐을 때 종결을 하나요?

“당사자 자원과 비공식 자원과 평범한 자원으로 산다.” 3)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쪽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사례관리에서 자원 연계는 금품 중심의 지원망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안전망입니다.⁴⁾ 당사자 자원은 당사자 안에서, 당사자 쪽에서 그 일을 풀어가게 돕습니다. 그 일에 관한 당사자의 경험이나 생각, 당사자 쪽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이 속에서 강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욕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공식 자원은 당사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려고 당사자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마음 두고 있는 곳이나 모임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사안과 상황, 사람에 따라 특별한 복지 서비스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제공하다보면 당사자는 그것에 익숙해지며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계속 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자원입니다.

‘사례회의’는 욕구에 관해 의논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욕구에 대해 그 일을 도울 수 있거

3)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26 푸른복지, 2018

4)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30 푸른복지, 2018

나 적절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회의입니다.⁵⁾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최적의 지점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삶을 당사자와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끼리, 전문가라는 이들끼리 모여 논의하고 결정한 뒤 이를 따르라 말하는 건 무리입니다. 이 ‘사례회의’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작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없이는, 사회복지사가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기록’은 사례관리 진행 과정을 의도와 근거와 성찰을 담아 글로 남기는 일입니다. 이런 기록은 당사자와 정보를 나누고,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당사자를 응원하는 도구입니다. 사회사업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살피는 도구고, 당사자를 향한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바로 잡고 다듬는 성찰의 도구입니다.⁶⁾ 이렇게 말하니 ‘기록’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당사자와 사회복지사와의 글로 이루어진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를 종합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같이 문서를 확인해도 전혀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 만큼 용어도 쉽게 쓰고 차별, 편견이 담긴 단어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이야기, 그 당사자의 진심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기록한 것을 쭉 펼쳐봤을 때, 그것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업무 목적의 문서라기보다는 그 당사자의 삶의

5)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54 푸른복지, 2018

6)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83 푸른복지, 2018

한 조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번 스터디 시간에는 ‘자원’, ‘사례회의’,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두 번 밖에 하지 않은 스터디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읽고 접하는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서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실습생들의 글도 인상 깊었습니다. 영어 수업에 대한 상담을 학생 없이 부모님과 본인만 했다는 경험을 빗대어 글을 씀으로써 책 내용을 더 자기 것으로 만든 김용욱 실습생,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글을 쓴 김영곤 실습생의 글을 보며, 고개가 많이 끄덕여졌습니다.

사례관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 둘 모두가 만족하는 문제의 해결방향 표지판으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유독 이번 스터디를 예습하면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실습생들과 스터디 했던 것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화의 기술>, <사람들이 듣고 싶게 하는 말하기의 기술> 따위의 도서들이 출간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진심이라는 것은 절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배우면 그만이지만 마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화려한 기술보다는, 담백한 진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부모임

계획, 평가, 종료, 사례발표회, 사례관리 업무를 내려놓을 때, 적용, 강점

욕구 합의, 자원 종류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 없이 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서비스 따위를 연계하는 일은 '서비스 브로커'에 불과하다는 말이 와 닿습니다.⁷⁾ 계획서는 모든 복지관에서 다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복지관도 있는지, 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확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례관리 시나리오 작업은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 와 닿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상황과 비슷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맞다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7)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65, 푸른복지, 2018

사례관리에서의 '평가'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행정적인 평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에서의 평가는 옳고 그름 또는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 수치화시킨 딱딱하고 규격화 된 문서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숫자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보고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⁸⁾ 아무래도 사례관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점수를 매기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상위 기관에서는 그것을 원합니다만, 사회복지사와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과 이야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과가 되는 것 아닐까요?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실적 때문에 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힙합 뮤지션이 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한 적도 있습니다. 힙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만큼 대중화가 된 건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힙합 뮤지션이 부유한 집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돈 자랑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부유한 뮤지션이 꽤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은 돈을 위해서 음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악, 자신이 잘 하

8)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75, 푸른복지, 2018

는 음악,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그저 묵묵하게 하다 보니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사례관리의 실적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를 향한 진심, 당사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사례관리에 임하기를 바라고, 자연스럽게 좋은 실적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사례관리 과정 기록, 당사자와 주고받은 대화 등을 정리한 사례관리철을 다듬고 제본을 해서 당사자에게 건네준다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물을 받는 느낌 아닐까요?⁹⁾ 그 제본 안에는, 당사자의 긴 시간 동안의 많은 감정이 섞여 있을테니 말입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성이 담긴 작업을 하는 복지관이 많을까요? 이런 정성이 담긴 작업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을까요? 분명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복지관과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좋은 선물을 건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발표회 혹은 성과발표회는 우리가 만나온 당사자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강점을 붙잡고, 어떻게 변화하기를 생각하며 도왔는지 첫 만남부터 발표회까지 그 과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¹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감동을 받으며 그들끼리 즐기는 건 오히려 당사자를 아프게 하

9)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80, 푸른복지, 2018

10)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93 푸른복지, 2018

고 상처 주게 하는 무언가를 발표회라는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 것 아닐까요? 사례관리 과정에서도 그랬듯,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와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합의를 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 파트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당사자를 만나면서 진심이 아닌 그저 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마음으로 대한 당사자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 당사자에게는 진심보다는 비즈니스적인 마음이 더 컸는지, 그런 문제가 닦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당사자의 단점도 사례관리에서 욕구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으면 강점이 된다는 부분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단점이 반드시 약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¹¹⁾ 사실 강점과 장점, 약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강점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강점이지만 이런 강점이 더욱 문제를 두드러지게 합니다.¹²⁾”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 더욱 문제를 두

11)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43 푸른복지, 2018

12)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43 푸른복지, 2018

드러지게 하면 강점이 아니라 약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데 왜 여전히 강점일까요? 궁금합니다. 강점 관점은 당사자의 강점을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강점을 통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게끔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속에 화가 가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기를 배운다거나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강점 관점은 굉장히 건강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문제를 무조건 다 없앨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¹³⁾ 이것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개그맨을 TV에서 봤습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종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아직까지도 정말 좋아합니다. 한 개그맨은 방송 활동 초기에 안경을 벗어서 맨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이자 콤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맨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경을 벗는 행위’를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점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그 당당함을 닮고 싶었습니다.

13)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59 푸른복지, 2018

세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번 스터디는 특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평가와 실적, 강점 관점 파트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례관리 스터디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적었던 '실적'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를 향한 진심, 당사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사례관리에 임하기를 바라고, 자연스럽게 좋은 실적이 따라오기를 바란다.' 는 부분에서 특히 김태권 선생님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김태권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와 달리 현재 현장에서 사례관리 일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더 많이 부딪히고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강점 부분은 많이 마음에 와 닿았나봅니다.

당사자는 사례관리자와 함께 하나씩 본인의 강점을 발견한 후, 그것을 발휘시킴으로써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생깁니다. 절대 우리는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끔 해주고, 그것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것 아닐까요?

네 번째 공부모임

생태, 관계

비단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어떤 분야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생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생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그려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가족, 친지, 친구를 비롯해서 학교, 회사, 취미 공간 등 많고 다양한 환경 및 자원과 묶여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문제 파악 또는 욕구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의 파악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히려,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의사 전달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일 뿐, 결국 “니가 문제야. 니가 바뀌어야 니 문제도 해결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들은 당사자의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더 무지막지하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에게 문제의 초점을 다 맞추기보다는, 그 주변의 환경과 자원들에 시야를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파트에서도 결국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돌레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의 인생은 살만해지고 자살 등의 나쁜 마음을 먹을 확률이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보태는 이야기, 돌’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표○○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씨에게 단 한 명이라

도 따뜻한 말과 그를 위한 진심을 보였다면 신○○씨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계,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저지를 때마다 강한 체벌과 엄한 질책을 받았던 것은 유사하지만, 그럴 때마다 표○○씨에겐 따뜻한 가슴을 열어 위로와 격려를 해준 이웃 아주머니와 선생님들이 계셨던 반면, 신○○씨에겐 이웃의 싸늘한 시선과 불만, 교사의 욕설과 무시가 뒤따랐다는 큰 차이 점이 있다.”¹⁴⁾

네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스터디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생태’와 ‘관계’가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스터디 내용에 녹여 이야기 한 것도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자전거 그림¹⁵⁾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둥근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평평한 바닥에서 잘 굴러가는데, 네모난 바퀴를 가진 자전거는 평평한 바닥에서 굴러가지 않아서 바닥 자체를 네모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둥근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오히려 잘 굴러가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김태권 선생님에게 여쭙보니, 자전거는 개인이고 바닥은 그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물리적인 환경의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권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14)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74 푸른복지, 2018

15)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20 푸른복지, 2018

또 김태권 선생님은 사례관리로써의 상담과 일반적인 상담은 분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단지 치료가 목적이려면, 사례관리로써의 상담은 치료목적보다는 그들과 관계형성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권 선생님과 김진실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실습생들과 마지막 스터디를 공유하는 시간이 참 재미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공부모임을 마무리 하며

네 번에 걸친 사례관리 스터디가 끝이 났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책을 처음 입을 때가 생각합니다. 전문서적처럼 딱딱하지 않고, 누가 내게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재질 또한 제가 좋아하는 재질이라서 더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문서적처럼 딱딱했다면 재밌게 읽지 못했을 겁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를 읽으면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하며 사례관리에 관한 과정, 이슈를 알게 됐고 나와 여러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터디를 기반으로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직접

기록지를 작성해서 사례회의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경험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의 값진 조언도 새겨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례관리는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례관리 스터디를 하면서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관리는 상담하고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계해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례관리는 ‘자원 브로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는 기계적이거나 행정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기보다는, 당사자의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당사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사자를 향한 진심을 가져야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공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관계는 단단하지 않고 느슨한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진다면 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후에 사례관리 업무를 실제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하게 된다면 꼭 이 점을 기억하면서 당사자를 만날 것입니다.

이 책은 제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래 소장하면서 가끔씩 펼쳐야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또 이 책을 접하게 되면, 그 땐 지금과 또 다른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영곤

첫 번째 공부모임

사례관리, 사례관리 개념, 욕구, 초기면접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뭘까?

사례관리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단어가 '당사자 주의'와 '강점관점'이었기 때문에 전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자신의 일에 항상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복지 당사자'가 욕구를 '해결해가게' 돕는 일이지, 욕구를 '해결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사례관리는 당사자가 끝까지 자기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게 돕는 실천입니다."¹⁶⁾는 문구를 읽으면서 제가 복지 대상자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주인의식이 과연 진짜 '주인의식'이었는지 돌아쳐보았습니다.¹⁷⁾ 전 사회복지사가 특히나 알코올이나 도박 등에 대한 중독, 혹은 아동학대의 사례를 마주했을 때,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와 해결을 '직접'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¹⁸⁾ 그런데 모든 사례에서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

16)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p.2, 푸른복지, 2018

17)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0, 푸른복지, 2018

18)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4 각주, 푸른복지, 2018

도록 도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동학대나 불법도박, 약물, 알코올 등에 대한 중독과 관련된 사례를 접하고 그 당사자가 올바른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여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까요?

사례관리 개념

저는 사회복지사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요건은 “첫째,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개념화”, “둘째,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¹⁹⁾

욕구

당사자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사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주인공으로서 역경을 헤쳐 나간다는 것에 조그마한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사례관리에 임해야 합니다.²⁰⁾

초기면접

학교에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들을 때 팀 프로젝트로 다른 학우와 함께 서로가 사회복지사와 복지대상자의 역할을 나누고

19)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5. - 6, 푸른복지, 2018

20)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6, p.22, 푸른복지, 2018

서로에 대한 초기면접을 진행하는 과제를 진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지대상자 역할을 해줬던 학우가 제가 초기면접에서 눈을 많이 맞춰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기에 평소에 얘기하고 싶던 어려운 점이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잘 얘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복지대상자가 '업무상'의 초기 면접이 아닌, 정말로 친구와 가족들과 대화를 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면접을 진행한다면 복지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²¹⁾

첫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사회복지의 꽃은 사례관리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수업이었는데 졸업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이신 선배님과의 대화에서였는지, 아니면 실습을 먼저 해본 동기들의 말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번에 사례관리 스터디를 처음으로 해보면서 느낀 것은 그 말이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란,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현장을 조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내용들은 '강점관점과 당사자주의'에 기초하여 사례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자존감도 높아보여서 매우 만족스럽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1)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48, p50, 푸른복지, 2018

두 번째 공부모임

자원, 생태도를 그리는 이유, 사례관리

누가 뭐래도 당사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원

사회복지사는 당사자가 인생에 큰 위기가 여러 차례 닥치거나, 한 번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 발생해서 방황을 할 때, 옆에서 당사자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손에 쥐고 있는 '선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선장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시키고 그 나침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원'이 되어야 합니다. 선원이 선장의 키를 뺏는다면? 그것은 반란이고 배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장이 나침반의 존재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인지했음에도 선원이 계속해서 배의 방향과 운행에 간섭을 한다면? 나중에 이 선원이 배에서 내리게 된다면 혼자 남은 선장은 과연 폭풍우가 없는 바다의 방향으로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키를 놓아버린 탓에 감각조차 무뎠어 버리는 게 아닐까요? 사회복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폭풍우가 없는 바다로 나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선장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선원이 되어야 합니다.²²⁾

22)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26, p.31, 푸른복지, 2018

생태도를 그리는 이유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생태도는 사회복지사가 초기면 접이나 이후의 사례관리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주변 환경과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그리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당사자가 직접 생태도를 그리게 한다는 내용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²³⁾ 다시금 생각해보니 당사자의 삶에 관한 자원을 조사하고 기입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과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군의 시선에서 나도 모르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태도를 그리는 과정은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업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서 반성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주인인 사회복지실천을 만들기 위해선 사례관리회의에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당사자를 중심으로 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대상자가 직접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아 있습니다.²⁴⁾ 나의 인생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존중과 정성이 없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대상자의 기분은 얼마나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할까요? 저는 남들에게 나의 이야

23)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37, 푸른복지, 2018

24)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87, 푸른복지, 2018

기를 해주었을 때 남들이 귀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나를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존중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베풀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두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번 스터디에서 배운 점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에서 누구보다 대상자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사회복지사)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했던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주제여서 더 좋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생에서 대상자가 주인공이고 자신의 몫을 다 해야 한다는 제 의견을 간단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았는데 그것이 다른 실습생과 사회복지사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은 것 같아서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 공부모임

계획, 평가, 종료, 사례발표회, 적용, 강점

계획

당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사실들을 모두 내려 놓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의논하면 해결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그저 당사자가 잘되길 바라는 좋은 마음이 어찌면 당사자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놔서 누구를 돕겠냐고 하겠냐만, 그런 마음이 모이면 의지가 되고 의지가 모이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당사자를 웃게 할지 모릅니다.

평가

평가를 통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어도 “나와 당사자가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나?”를 생각해봅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목표와 목적은 달려갈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달려가는 길에 잠깐 서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원래와 다른 길로 가다가 내가 몰랐던 멋진 풍경이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라는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아도 당사자와 나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달성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누리고 그 결과에 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줍시다. 내가 못한 걸 곱씹어 보는 건 패배감과 우울함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잘한

건 두고두고 꺼내 보며 즐거워하고 좋아해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은 당사자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례관리 개념에 대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평가에 앞서서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화는 이루어졌을까요?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꼭 몇 건/회의 사례를 담당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료

사회복지사 자신의 한계와 역량을 생각하며 당사자를 돕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지 욕구가 있는지 파고들지 맙시다. 본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몫입니다. 압박하고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자장면으로 충분한데 자꾸 탕수육도 먹고 싶지 않냐, 밥을 더 먹고 싶지 않냐, 국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참견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사자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면 우선 자장면을 혼자서 주체적으로 시켜먹을 수 있게 도와시다.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말할 수 있게 만듭시다. 생각했던 주문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당사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말에 진심을 다해서 귀 기울여 주는 자세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발표회

사례발표회도 당사자와 함께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운전하며 여정을 한 당사자가 여행 마지막에 승객이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여행에 대한 추억을 곱씹을 때까지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당사자는 여행의 주체자입니다.

적용

어떤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제 삶의 모토와 거의 일치합니다.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하지도 않고 하는 후회보단 100배 더 낫습니다. 시도도 못해본 것에 대한 후회만큼 빠져린 후회는 없습니다. 시도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어느덧 세 번째를 맞이한 스터디지만, 이 스터디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례관리를 접하고 사례관리에 대하여 같은 실습생과 현장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이라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길었는지 다들 사회복지에 대한 본인들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고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다음번 스터디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다들 복지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먼 훗날, 혹은 사회복지를 업으로 삼지 않고 있더라도 20대의 한 순간을 사람들의 삶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부모임

생태, 관계

생태

생태에서 당사자와 환경을 자전거 바퀴와 자전거가 가야 할 길로 묘사했는데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전거의 바퀴는 원형인데 만약 원형이 아닌 바퀴를 가진 자전거가 있다면 전 자전거의 바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남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바퀴가 처음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게 과연 처음의 그 자전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의 바퀴도 어느 정도는 모습을 변화하여 달리기 편하게 바뀔 필요가 있지만, 자전거가 가야 할 도로도 조금은 자전거에 맞게 바꾸어서 달린다면 조금 더 빨리 편하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뒤에서 언급되는 많은 정신질환과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스마트 폰 중독과 자살 문제 등에서도 생각해볼 것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와 고통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이라는 요소로서 더욱 심화하고 강화된다는 것은 크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고민을 얘기하면서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거나 한결 편안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이 유별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 한다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여겨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

어주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은 정신병자로 취급되거나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

관계란 당사자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맺어가는 지위, 상황,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예시를 보면서 제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도 제 인생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상자들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서 지지해주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다녀오고 재미있는 여행을 다녀와서 마음이 헛헛하더라도 익숙한 풍경에 자리한 내 집에 들어갈 때 “아, 내 집만 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에게 좋은 관계를 주선해서 잘 이루어가도 당사자는 ‘불편하지만 멋진 옷’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계는 본인이 만들어가고 유지해갑니다. 그래야 당사자의 삶이고 관계가 ‘내 몸에 편하고 잘 어울리는 옷’이 됩니다. 당사자에게 최고의 옷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상담과 충분한 복지관의 자원, 그리고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과 그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가지짐이 없다면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함께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실습생에게 실습생은 사회복지사에게 서로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안타까움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4년 동안 배웠던 지식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야기 해본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누군가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로서 같은 과의 학우들과 잠깐이나마 이야기 해본 것도 진지한 고민이자 토론으로 쳐준다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번 실습에서의 스터디 시간은 오랜만에 사회복지에 대한 제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정립한 가치관처럼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이 이런 감정이 저와 이번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실습생 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배우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린 기회로써 제공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용욱

첫 번째 공부모임

사례관리, 욕구, 초기면접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이하 공부노트)의 사례관리 개념정의
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례관리란 복지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를 이
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²⁵⁾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회복
지학 필수전공 교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실천론의 정의가 궁
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이 모두 달라서
이를 종합해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욕구 사정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실천방법이다.”²⁶⁾

길고 어렵습니다. 누군가 사례관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 정의
를 외워서 말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노트의 사례관리
개념이 훨씬 쉽게 와 닿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25)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5, 푸른복지, 2018

26) 주경필 외, 「사회복지 실천론」 p.292, KNOUPRESS, 2017

사례관리, 욕구, 초기면접 각 단원은 머릿속에 또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복지는 당사자의 욕구에서 시작하고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례관리가 종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두 번째 주제 '욕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의 단순한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욕구 파악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가 말하는 욕구가 정말 원하고 있는 욕구인지, 그 욕구는 사회복지사의 기준과 사회규범에 맞는 것인지, 만약 다르다면 어떤 방법으로 욕구의 합의에 이르게 되는지,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욕구 하나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 기간 함께하기'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얻고자 하는 욕구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합의 되었어도 그 욕구와 문제를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으로 얻게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 자원인 돌래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 활용하기'가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와 욕구를 사회복지사가 해결해 주고 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과 복지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욕구와 문제를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내려놓은 욕구와 문제는 다른 복지관으로 이전되는 것 일까요? 이전된다면 그 당사자는 초기면접부터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다시 경험해야 하나요? 그건 당사자를 너무나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례관리 스터디 시간에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례관리 실천 중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를 내려놓는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은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냉정과 열정,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특성도 복지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당사자들을 일반화가 아닌 '개별화'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공부모임의 시작은 자신의 강점을 발표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실습생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이토록 잘 알고 있으니 매우 훌륭하다고 김태권 선생님은 피드백 과정에서 놀라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 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나니 발표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강점을 내가 말함으로써 '나는 정말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이다.'는 걸 더 깊이 느꼈다고나 할까요.

자기소개 후 공부노트 소감문을 실습생들이 한명씩 발표했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습생 모두가 사례관리는 사람관리가 아니라는 말을 지목했고, 초기면접에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해서 복지 당사자가 조사를 받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사도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실습생들의 발표 후 공부노트를 읽고 소감문을 써오라는 과제에 대해 김태권 선생님은 모두 훌륭히 잘 했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김태권 선생님의 후한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우리 실습생들도 춤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습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도 성실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내려놓은 욕구와 문제는 다른 복지관으로 이전되는 것인지, 이전된다면 그 당사자는 초기면접부터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 물음에도 쉬운 예를 들어 성실히 진심을 다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사자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술을 끊는 것이 문제의 해결처럼

보이지만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이 술을 끊게 만들 수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의 자원을 이용해서 술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기간 함께 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당사자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라는 김태권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모임을 끝맺으며 남긴 당부의 말씀도 기억하기로 합니다. “나의 강점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소진 될 때가 분명히 있고 그 소진을 극복하기위해 강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강점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원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공부모임

자원, 사례회의, 기록

공부노트를 읽기 전 복지자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부조를 비롯한 복지정책과 후원자의 후원금 등을 생각했습니다. 공부노트에서 말하고 있는 자원을 읽고 내가 생각한 공식적인 자원 말고도 당사자 자신과 가족, 돌레사람 등의 비공식자원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복지정책도 물론 매우 중요

하고 그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생태도 속의 사람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에서 자원 연계는 금품 중심의 지원망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안정망이기 때문입니다.”²⁷⁾

두 번째 주제인 사례회의를 읽으면서 20년간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했던 내 모습을 돌이켜 봤습니다. 학생의 어머니가 학생의 학습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면 학생 없이 어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구구절절 자신의 자녀에 대해 불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는 건지,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큰일이다 등의 학생을 배제한 어머니와 나 단둘의 상담, 아니 그저 어머니의 뉘두리를 듣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학생 당사자이고 부모 또한 자기 자식을 다 알 리가 없는데, 나는 어머니가 말한 학생의 단점을 나도 모르게 믿고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과 단둘이 얘기해보면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으니까요. 학생 없이 진행 되는 어머니와 나, 단 둘의 상담이 당사자를 빼놓고 소위 전문가라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당사자의 복지에 대해 진행하는 사례회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조각내고 각 조각을 분석하는 틀이 중심스럽습니다. 당사자를 나와 같은 인격적 존재로 보기 어렵게 합니다.”²⁸⁾ 공부노트의 이 글은 그 옛날, 잠시나마 영어성적으로

27)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30, 푸른복지, 2018

로 아이들을 조각내고 분석했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기록'은 비단 사례관리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물론 세계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비리 또한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발각 되면서 시작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상당 시간 함께 하며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을 하면서 기록을 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실습생으로서 실습일지, 사례관리 스터디 전과 후의 소감문 쓰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기록된 이상 누군가에 의해 읽혀질 것이고 '사례관리 기록은 꼬리표처럼 당사자를 평생 따라다닐지 모릅니다.'라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복지관에 따라 기록 방법도 다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기록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례관리 기록을 당사자가 보고 결재란에 당사자의 서명 칸을 포함한 전미선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읽고 그 어떤 기록 방식 보다 쉬운 이야기체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이야기체여야 당사자도 읽고 이해 할 테니까요.

28)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62, 푸른복지, 2018

두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 등을 나누며 두 번째 공부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모임을 마친 후의 느낀 점을 소감문 형식으로 써서 발표했고 이어서 두 번째 공부모임의 주제인 자원, 사례회의, 기록에 대한 소감문을 낭독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모임 때와 마찬가지로 공감 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복지 당사자를 비롯한 사람과의 관계망이 금품, 물질에 버금가는 귀중한 ‘자원’이며, 당사자를 배제한 ‘사례회의’ 진행을 지양할 것과 당사자에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기록’의 중요성에 실습생들이 공감했습니다.

김진실 선생님은 각 실습생의 소감문 낭독 후 자신의 생생한 사례관리 현장 경험담을 피드백 과정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품 등의 자원이 중요하지만 금품 등에만 의존하고 사람과의 관계망 형성이 빈약하면 당사자가 예전의 빈곤한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실제 그런 경우를 본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권 선생님은 실무에서는 복지 당사자 없이도 통합사례회의가 진행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의 경우, 공부노트에서는 이야기체로 쓰기를 권장하지만 그것만 옳다는 생각은 지양할 것과 선호하는 기록의 방식은 가지되, 그것만 옳고 다른 기록 방식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있지만 실무의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기관의 방침이 우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이번 주 공부모임에서 배운 것은 어떤 자원이 있고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하는 계획을 당사자와 함께 세우는 일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것과 사례관리 업무 지원회의 또는 통합 사례관리 업무 지원 회의에서는 당사자 없이도 사례회의가 진행된다는 점, 내 사례관리 철을 보자고 당사자가 요구했을 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사례관리 기록은 글로 새기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부모임

계획, 평가, 종료, 사례발표회, 사례관리 업무를 내려놓을 때, 적용, 강점

‘계획’에서 사례관리 시나리오 작업은 공부노트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는 책에서 말한 것만큼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이야기체로 풀어 쓴 것으로 일단 이해했습니다. 훗날 사회복지사가 되서 사례관리 시나리오 작업을 해보면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평가’와 ‘종료’는 계획하고 실천한 일에는 반드시 따르는 일이므로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계량화된 수치가 아닌 당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이야기체’로 기록한 글이 성과라는 말과 사례관리는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과 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기관이나 기관이 보고를 해

야 하는 상위기관에서도 '당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글'과 '듣는 과정'을 성과물로 봐 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치를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사례발표회'는 복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한다면 본인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할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당사자의 속사정이야기가 나오게 될 터이니 역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부터 구한다는 공부노트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강점' 부분을 읽으면서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이웃 할머니의 형광등 스위치를 고쳐주기 위해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며 술을 멀리한 이씨 아저씨, 어르신께 밀반찬 서비스를 배달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한 술 좋아하는 괄씨 아저씨! 술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간접강점으로 술을 멀리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와 씨름하는 것 보다 간접적으로 에둘러 가는 방법이 때론 문제의 해결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깊이 새겨볼만 합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그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증으로 문제를 더 키우는 대신 기꺼이 시간을 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의 소제목 ‘한계’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인 잔여적 복지전달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외면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응하면서 자선적 시혜를 베푸는 온정주의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방법이라고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²⁹⁾는 부분을 읽었을 때 사실 나도 이런 비판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떠나가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당사자 하기 나름이란 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국가의 선별적인 기준으로 거르고 걸러 마지막에 남는 사람에게 복지의 혜택을 선사하는 잔여적 복지정책의 대표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런 한계가 있어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궁리하겠다.”³⁰⁾는 공부노트의 글을 읽고 제도를 탓하며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잔여적 복지 전달 방법이라고 비판만 하는 것 보다 현실 속에서, 또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짧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도 현실적인 열악한 제도 속에서도 수많은 훌륭한 사회복지 전문가이며 노동자들이 일구어낸 노력의 결실 일부분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9)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14, 푸른복지, 2018

30)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14, 푸른복지, 2018

세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세 번째 공부모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 중 하나는 '평가'였습니다. 계량화된 수치가 아닌 당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이야기체로 기록한 글'이 성과라고 하기에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보고를 받는 복지관의 상위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체 기록을 성과물로 봐 줄 것인가라는 점을 모든 실습생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김태권 선생님은 사례관리집을 실적으로 제출했던 기관이 한 군데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야기체 기록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만큼 이야기체 기록의 사례집은 그 어떤 수치로 계량화된 보고용 서류보다 복지당사자, 사례관리자 모두에게 오랜 시간 함께 해서 이뤄낸 결실일겁니다. 그런 결실을 맺는 복지관이 점점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공부모임의 좋은 점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다른 실습생들이 언급해서 나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장면과 탕수육의 비유로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원한다 생각하고 강요를 가장해 내 만족을 추구한 건 아닌지를 생각하게 해 준 김영곤 실습생,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돈도 따라오더라는 힙합 가수들의 예시를 통해 사례관리 또한 당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다 보면 실적도 따라오는 게 아닐까라

고 말해준 김성림 실습생,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평가방법을 언급해 주어서 현실과 이상의 절충을 생각해 보게 한 김정윤 실습생, 이번 세 번째 공부모임에서도 모두의 나눔은 기발했습니다. 물론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사회복지현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것들이라 그 생생함 속의 정보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공부모임

생태, 관계

독버섯으로 지목되어 심란해 하는 어느 버섯의 이야기는 세무사로 일하는 작은 오빠의 말에 잠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최근의 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세무1급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 할 수 있을까?”라고 지나가듯 물었는데, 오빠는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고 막 갈아서 무엇이든 베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처럼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세무공부를 시작했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 공부는 끝나고, 현재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를 생각 중인 나였지만 ‘넌 안 돼.’라는 말을 들었던 그 날 세 시간 동안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버섯인 우리들이 왜 식탁의 논리로 우리를 평가해야 하느냐는 말은 두 가지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식탁의 논리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버섯처럼 나 역시 작

은오빠의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자는 결심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시도해보지 않는 이상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시간 낭비야.”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비슷한 말들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다른 사람의 꿈을 뺀 적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시도해서 성공하지 못한 일이라 해도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시간 낭비야.”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결심입니다. 대신 내 경험을 얘기해 주고 당신과 난 성향이 다르고 처해있는 환경도 다르니 시도해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의 주제, ‘생태’는 문제를 볼 때 문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즉 환경을 함께 보고 문제를 이해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신장애,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자살, 스마트폰 중독 등에 대해 공부노트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고립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고립감은 두 번째 주제 ‘관계’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를 믿어주는 한사람의 힘³¹⁾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사회복지사이어야 함을 공부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례관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³²⁾ 그래서 인간적 만남과 인간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적 만남과 인간적 관계, 그런데 나에게서는 이 말이 모호합니다. 인간적이란 의미를

31)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69, 푸른복지, 2018

32)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90, 푸른복지, 2018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정도라고 이해한다면 진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심은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면 화가 난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실망하면 실망한 대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숨기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복지 당사자에게 표현하면서 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이란 말을 나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가슴이 너무 뜨겁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실망하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차갑다 보면 복지를 상품권처럼 전달만 하는 제공자가 될 뿐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면 누군가를 믿어주는 한사람의 힘에 나도 그 한사람이 되서 힘을 보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첫 번째 공부모임의 주제였던 사례관리의 정의를 다시 읽고 되새겨 보고 싶었습니다. “사례관리는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³³⁾

네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같은 문제라도 환경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더 악화 될 수도 있다는 생태적 관점의 시각은 문제가 생기면 문

33)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5, 푸른복지, 2018

제 당사자를 닮았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에 많은 것을 던져 주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혼자 일 하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관계’에 대한 소회를 나누면서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만큼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의 사전적 정의를 내세워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 진심이고 그렇다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나의 회의적인 시각에 복지당사자를 만나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를 섬기고 돕고자 하는 참된 마음이 진심이라는 김태권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섬기고 돕고자하는 참된 마음’이란 정의는 김태권 선생님의 사례관리 현장 속 생생한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섬기고 돕고자하는 참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례관리 공부모임을 마무리 하며

3월 실습 초 지은이 김세진 선생님의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라는 책으로 사례관리 공부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까지만 해도 한 손에 잡히는 파란색 예쁜 겉표지의 작은 책 일정 분량만 미리 읽어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례관리 공부모임 때마다 책 읽기와 함께 글쓰기 과제가 있을 것이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글쓰기는 솔직히 말해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

다. 글이란 것은 말을 하듯 쓸 수 없고 적당한 단어를 생각해서 선택해야 하고 문맥과 어법에도 맞아야 하며 어느 정도 논리성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의 공부모임이 끝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만약 공부모임 때마다 책만 읽고 소감문을 쓰지 않았다면 공부모임 때 어떤 내용에 대해 공감했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공부모임이 좋았다는 표현만 할 수 있을 뿐, 달리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런 과제를 내준 김태권 선생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책 한권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고 이견(異見)에도 귀 기울이는 공부모임을 하는 실습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런 사례관리 공부모임의 소회를 기록으로 남겨서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공부노트에 소개된 현장의 생생한 사례들과 김세진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글들을 손닿는 곳에 두고 틈틈이 읽을 겁니다.

좋은 피드백을 나누어준 김성립, 김영곤, 김정운 동료 실습 선생님들과 피드백 때 마다 자신의 실무 경험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주신 김진실 선생님, 그리고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라는 좋은 책 제공과 함께 그 책으로 공부모임을 진행해 주신 김태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정운

첫 번째 공부모임

사례관리와 초기면접 부분을 통해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례관리는 여러 자원을 통해 욕구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는 상담기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사람 관리’로 이해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느껴져 개입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도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례관리의 개념이 ‘사람 관리’라는 점에 대해 큰 반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욕구를 합의할 때는 대상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대상자의 전부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례관리의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습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분들께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초기면접이나 합의된 욕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책에서는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은 대상자분들을 마주치게 될 때는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당사자분과 첫 만남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과 대화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현장을 경험하게 될 예비사회복지사에게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 노트’에서는 따뜻한 말로 교훈과 배움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의 욕구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의 욕구를 존중하지만, 우리의 처지와 역량을 생각하여 진정 당사자에게 유익이 있겠다는 방법으로 돕는 겁니다.”³⁴⁾라는 구절에서는 각종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던 헤드릴 수 있는 게 없어 힘들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는 무조건적으로 제공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인 일인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사의 입장도 고려하여 당사자와 합의 하에 결정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편안하게 말하게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시종일관 당사자를 이해하며 공감하려 애쓰고, 그렇게 당사자를 나와 같은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당사자와 연결됩니다. ‘연결’을 다른 말로 ‘연대’라고도 합니다. 이제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구절은 연습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34)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6, 푸른복지, 2018

다. 이 내용에서 저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대상자에 대해 공감하고 경청하고 합의된 욕구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무언가를 위해 함께 일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습 교육에서 배웠던 가치와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와 대상자의 관계가 단순히 자원을 연결해주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사례관리를 합의한 정의와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선택하여 정리하고 적용합니다. 자기실천에는 개념과 행위가 맞아 떨어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³⁵⁾ 이 부분 또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고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대상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필요성을 설명할 때 더욱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유정 과장님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어서 더욱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사례관리 스터디를 통해서 이론에 대한 개념보다도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료

35)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5, 푸른복지, 2018

실습생들과 예습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나누는 것이 매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의 분야에 대해 예습한 내용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는 깊은 태도와 새로운 관점에서 배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덩달아 예습을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모임 하는 책의 내용이 사례관리라는 조금은 광범위하고 막연한 부분을 실무자들의 시점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 사례관리에 관심이 많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부모임

자원, 사례회의, 기록

이번 예습에서는 학교에서만 배웠던 개념들의 내용을 현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먼저, 자원 챕터에서는 비공식 자원, 평범한 자원, 특별한 자원 등이 있고 이러한 자원은 사회복지사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있지만 필요한 자원을 먼저 당사자 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³⁶⁾ 특히, 사회복지사는 심부름하는 모습으로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의 중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사례관리는 금품 중심의 지원망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안전망”³⁷⁾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만 연

36)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28, 푸른복지, 2018

37)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30, 푸른복지, 2018

결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 사람과의 연결을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상으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에 어려운 상황의 완화와 가족과의 관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책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인공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좋아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가 가족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만한 태도였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회의는 주인공인 당사자와 함께해야 완성되며, 당사자가 없이 사례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회의는 사례관리 업무 지원 회의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기록 챗터에서는 이야기체로 기록하는 것이 대상자와 동료 사회복지사 등이 읽었을 때 오해가 없고 욕구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잘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이야기체로 작성이 되는 기관이 많은지, 기록지를 대상자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기록 방식에 있어서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원 챗터에서는 “여기서 ‘자원’은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와 둘레 사람(지역사회)이 당사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관심, 기술, 금품 등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 자체를 가

리키는 말이 아닙니다.”³⁸⁾라는 구절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에는 비공식 자원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 자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그러한 점을 꼭 집어 사람이 도구나 수단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에게 이론적인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당사자 자원과 비공식 자원과 평범한 자원으로 산다. 이는 여느 사람처럼 자기 뜻으로 자기 강점과 역량으로 살아가고, 부족한 만큼은 둘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³⁹⁾라는 부분에서도 대상자를 그저 사회적인 약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자원을 잘 이해하고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가 이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맞는 가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갈대가 상했다고 꺾어 버리고 대신 기둥을 세우거나, 불씨가 약해졌다고 덮어버리는 밝은 등을 다는 이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상한 갈대를 받쳐주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내려 애쓰는 사람입니다.”⁴⁰⁾의 구절이 앞서 설명되었던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못해 막연하지만 만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이 당사자라면 연락이 끊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에

38)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27, 푸른복지, 2018

39)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29-30, 푸른복지, 2018

40)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41, 푸른복지, 2018

서 할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벼를 만들어드리고, 사례관리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인근 교회를 소개해드리는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도 대상자분에 대한 무례 인건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로써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좇는 이상이 다르니 나름대로 궁리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사례관리 서식은 마치 촘촘한 그물 같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강점은 없고 문제만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⁴¹⁾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리상담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비판이 있듯이 이러한 기록에 치중한 사례관리가 대상자를 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평가와 실적 관련하여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상과 가치를 잘 종합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스터디 시간에서는 첫 번째보다 동료실습생,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더욱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역시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

41)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62, 푸른복지, 2018

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스터디를 했던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가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자원 중심의 연계가 계속되면 자원이 사라지거나 종결되었을 때 초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자원 연계의 목적이 당사자가 다시금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당사자분들이 이러한 자원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당사자분이 직접 서비스를 받으러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내외 지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된다면 새로운 강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사례관리 공부모임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당사자 중심’이라는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부모임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대상자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록과 소통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부모임

계획, 평가, 종료, 사례발표회, 사례관리 업무를 내려놓을 때, 적용, 강점

단원 ‘계획’에서는 당사자와 합의된 욕구를 결정한 이후에 따라 오게 되는 계획의 과정에 대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는 모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계획을 세울 때 사례관리자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빈 양식을 가지고 당사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 사례관리 이론 수업시간에 동의서 작성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례관리 과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라고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동의서는 전문가란 사람들끼리 세운 계획을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⁴²⁾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말이 얼마나 당신에게 실례가 되는 표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평가형식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수업 조별과제 시간에 평가방법을 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당사자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했던 과정 모두를 수치화하고 각각의 수치마다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과는 당사자와 사례관리로 만나며 이뤄낸 결실입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업무의 성과는 어려움 속에서도 뜻있게 살아보려 애쓰며 가족과 이웃, 둘레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당사자의 이야기’가 결실입니다.

42)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67, 푸른복지, 2018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붙잡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더불어 살게 도와가는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가 결실입니다.”⁴³⁾라는 구절을 통해 당사자의 모든 변화를 수치화하려는 노력이 지극히 사회복지사 중심적이고, 당사자를 재단하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고민되었던 것은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복지관의 현실적인 면과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담은 이러한 평가방식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종료 단원의 소제목인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실습생으로서 사례관리의 과정에 참여하며 항상 생각했던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강점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지관과 사회복지사가 헤드릴 수 있는 자원을 위주로 생각한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점’ 단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에 빠지기 쉽고, 강점과 역량을 통해 삶을 거드는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을 사회복지사다움에 두고 진정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실천해도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는 안타깝지만 이런 뜻으로 만나온 과정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⁴⁴⁾라는 구절은 사례관리 종결을 고민하면서 새겨두

43)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76, 푸른복지, 2018

44)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82, 푸른복지, 2018

어야 할 가치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처지를 고려해 바르게 도왔으나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돌아설 줄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례회의와 마찬가지로 책에서는 사례발표회도 당사자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기록처럼 사례발표회 또한 당사자가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그 과정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례관리는 당사자와 함께했던 과정이 중요한 만큼 그 속에서 당사자의 노력과 변화, 이루어낸 것들을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모임에서 기록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각각의 기관이 선호하는 형태의 기록방식이 모두 달라 이야기체의 기록을 꺼리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발표회 또한 발표회의 참여자들끼리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나눔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과 강점의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사례관리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실천과정들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공부모임을 하면서, 동료실습생과 의견을 나눌 때도 공부모임에서 나온 기록 방식과 회의방식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꿰뚫어 ‘시도’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업무가 늘더라도 한 가정부터 시작한다면

실천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점 단원에서는 우리가 당사자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를 강점으로 여기고 이를 생동시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지금까지 작성했던 사례관리 과정 서류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의 강점은 많이 적혀있지만, 그 강점들을 고민해서 사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강점만 찾기 바빴던 태도를 반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세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와 사례관리의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하는 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부모임을 가지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책에서 배웠던 가치들이 현장에서 현실과 만났을 때 훼손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도 배웠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장은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가지와 행정서류에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얼마큼 참여했는

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생기고 실적보다는 서류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평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될 때는 더 나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배운 가치를 세우는 데 이런 변화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회복지의 첫 이미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무조건 드리기만 하는 관계, 서로의 소통이 있는 관계 등 모두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하듯 사회복지와의 첫 만남도 중요할 것이고 이 점을 현장에 나가서 일하게 될 때까지 항상 기억해 두어야한다 생각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점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부모임을 통해 좋은 가치를 배웠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아직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습 과정을 통해 한 어르신을 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대화 내내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대화의 마지막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고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어르신을 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문제와 욕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드리

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모임을 하면서 이런 내 태도가 무례하고 내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책에서 말하고 있던 당사자를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하고 필요를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리숙한 태도가 부끄럽기도 하고 중요한 점들을 다시금 배울 기회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공부모임에서 배운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부모임

생태, 관계

마지막으로 공부모임의 남은 챕터를 읽으면서 당사자와 그 둘레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치와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부노트’에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생태체계관점에 대해 당사자 중심으로 가치를 담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실려있었습니다. 생태챕터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와닿았던 문구는 “나쁜 조건도 그 속에 놓인 당사자와 상호적용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⁴⁵⁾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실습을 통해 배운 사례관리의 가치와 너무도 닮아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 그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말이 실습 과정에서 가장 마음 깊이 와닿았

45)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19, 푸른복지, 2018

던 말입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가치 속에서 당사자가 주변 환경에 상호작용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말합니다. 둘레 사람을 거들어 긍정적인 행동에 나서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심리학과 상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복지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심리상담에서는 개인의 문제 상황은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지 방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달리하고 심지어는 약을 처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듯 개인이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해소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 말했듯이 둘레 사람을 거들어 돕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통해 사회복지라는 분야에는 많은 매력이 있고 그만큼 나의 가치관에 맞는 일임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례회의 시간에 거듭 강조되던 둘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의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정신병자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를 들어 갖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는 ‘비정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세 번째 사례관리 공부모임시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통해 들었던 내용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문제와 욕구를 파고드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공부노트’에서도 사례관리

서식을 문제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그물망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듭 강조된 내용이니만큼 마음 속에 새겨 실천현장에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챗터에서는 당사자와의 “관계망이 문제대처와 해결의 원천이다.”⁴⁶⁾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에게 관계를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실습과정에서 만나봤던 어르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지식과 지역 사회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취미 활동도 다양하셔서 상담을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섰을 때 진정으로 필요하신 것이 관계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취미와 지식, 생각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과 계속 함께할 수 있었다면 연락하고 지내시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원하던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돕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외롭고 관계가 필요한 당사자 분들에게 그 ‘한사람’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다짐했습니다.

또 와 닿았던 구절은 “도와주어 고맙고 그 도움을 한동네 사람들이 이루게 해서 고맙기는 한데, 당사자가 살아왔고 살아갈 생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기존관계’가 더 멀어진다면, 우리 도움으로 기존관계가 약화하고 다른관계, 특별한 관계에 의존하게 한다면...”⁴⁷⁾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46)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68, 푸른복지, 2018

관계를 선물하기 이전에 당사자와 충분한 고민과 상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다른 자원을 연결해드리는 것이 관계회복의 전부가 아니며 종결 이후에도 스스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부모임을 마치고 나서

네 번째 공부모임도 지난 시간들처럼 각자 공부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실습생들 모두 직접 수필을 작성하는 것처럼 비유와 좋은 가치를 담은 말을 나눠 주었습니다. 처음 공부모임을 할 때보다 생각이 더욱 깊어지고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니만큼 읽으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았고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부르게 하는 말들과 경험으로 당사자의 가치와 강점, 자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실습생의 ‘진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나 나름의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진심은 사회복지사가 있는 그대로 전부를 솔직하게 당사자에게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닌 당사자를 돕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47) 김세진,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p.178, 푸른복지, 2018

태도로 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과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지켜야 하는 태도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빠지게 될 때도 당사자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관리 공부모임을 마무리 하며

마지막 공부모임을 진행하면서 처음 공부모임을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가득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을 만나 상담하고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책을 읽었을 때 ‘당사자’라는 단어와 사례관리의 가치에 대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례관리 공부노트’에서는 당사자를 당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전문가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당사자를 무한한 가능성과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말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같은 일이 사례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와 체계를 살리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과정에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야기체 기록도 아주 낮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쓰는 사람의 가치와 마음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록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소회들을 읽고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일은 흔한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공부모임에서 배운 가치와 당사자를 위한 진심을 담은 태도는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통해 배웠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당사자와 함께 한다면 적어도 지친 나무처럼 열정이 시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태권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고려하였던 것은 ‘사례관리란 무엇인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 아닐지라도 각자 스스로의 답을 찾고, 그 과정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올바른 사례관리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과정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과정서류를 작성 해보고, 회의하는 등 소위 실무적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 계획한 세부 활동이 바로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를 교재로 한 공부모임(스터디)이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공부모임은 무조건적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 닿는 의미는 각자에게 모두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방식은 참여하는 실습생, 사회복지사 모두 함께 약속한 분량을 연습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매 회기를 마무리 할 때 마다 배운 바를 정리하고 소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하는 2명의 사회복지사, 4명의 실습생 모두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아직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공부하고 있는 실습생에게는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를지 모르나 모두가 함께 성

장할 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사실, 개정판 이전의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로는 이미 개인적으로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례관리자로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사회복지 전공 학생으로서 공부하며 나눌 수 있는 생각들이 함께하니 모두에게 더욱 뜻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실습 중간평가 당시 한 실습생 선생님의 의견 중 이러한 부분이 기억납니다. ‘누군가 지금의 실습과정 중 가장 잘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곧 사례관리 영역이며 사례관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새롭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으로 기억합니다. 실습을 통하여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온전히 깨우칠 수는 없지만, 뜻있게, 그리고 제대로 배워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저 또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참여한 모든 실습 선생님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가 되어가는 데에 있어 초석이 될 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공부모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진실 사회복지사

2017년 9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 입사한 저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개정판으로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신입직원에게 주기 위한 교육의 한 일환인 것일까 라는 의문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의문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사례관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책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처럼 뜻 있게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복지관 팀 스터디, 새내기 사회복지사 연수 등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천에 대한 뜻을 세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만나게 되는 실습 선생님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입사 초반에 공부노트를 앞에 두고 의문을 가졌던 저의 모습처럼, 선생님들 또한 공부모임의 과정을 앞두고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실무를 경험하기 위한 현장실습에서까지 책상에 둘러 앉아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야말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읽고 쓰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살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 스스로 업무에 대한 정의와 방향성을 세울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바람으로 실습과정 전반기의 반을 공부모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으로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총4회 동안 책 한 권을 모두 나눴습니다. 이야기체 기록을 읽고 쓰는 것조차 낯설어했던 실습 선생님들은 어느새 공부모임의 목적을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부모임에 참여한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누고, 공감하고, 때로는 반문하며 '사례관리'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이는 현장에 있는 저에게도 큰 성장이었습니다. 사례관리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저의 실천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공부모임은 사회복지사가 실습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서로를 통해 배움을 얻는 과정이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배움을 잊지 않고 뜻 있는 실천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II.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곤 · 김용욱 · 김정윤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활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어르신들과의 첫 번째 만남

2019년 5월 14일, 노인의 집, 어르신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첫 만남에 약간은 걱정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환하게 우리를 반겨주었고,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끝내고, 나들이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가고 싶으신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셨던 문씨 어르신의 말씀, 독도 방문에 대한 뜻을 보여주셨던 최씨 여성 어르신의 말씀, 다양하였습니다. 저 또한 최씨 여성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와, 독도. 진짜 독도는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가 될까 해서 이 전에 했던 나들이들은 어땠는지 여쭙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전 나들이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많은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아마도 지금까지의 나들이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것저것 느끼고 여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다섯 가지의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곳이 선정이 되던 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두 번째 만남

어르신들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만남의 장소는 여성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노인의 집'⁴⁸⁾이었습니다. 나들이 장소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늘 만남의 목표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문씨 어르신의 생신이기도 해서 깜짝 생신 파티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만남의 장소로 가는 길, 문씨 어르신에게 좋은 기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져온 떡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 그리고 실습생들은 생일파티 소품을 착용 후, 문을 열고 문씨 어르신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해하시고 감사해하셨던 문씨 어르신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외로워지기 마련이라고도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에 문씨 어르신 생신 파티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래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개의 최종 후보 나들이 장소에 대한 회의가 다시 열렸고, 충청북도 제천시로 최종 정해졌습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떤 장소에 투표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차게 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싶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48)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니다. 어르신, 실습생,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 모두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나들이 알차게 준비를 잘 해서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세 번째 만남

일주일 만에 어르신들과 재회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황도 듣고 다음 주에 있을 나들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두의 마음은 코앞으로 다가온 나들이로 이미 들뜬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분위기도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실습생들도 같이 가는 만큼 분위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각자 깜짝 간식을 준비하기로 했고, 어르신들과 실습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노래자랑도 분위기를 더 돋울 것 같습니다. 과거 음악을 한 경험이 있는 제가 랩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에 떠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날은 좋은 날인 만큼 저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왠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다음 주에 나들이 가는 것이 실감이 나고 점점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새 다음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최씨 여성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정말 아쉽지만, 만남이 있으면 항상 헤어짐이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쉬워하면서 마음과 시간을 다 쓰지 말고, 다음 주에 있을 나들이를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들이를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보낼 좋은 시간을 아끼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네 번째 만남

드디어 오늘은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세 번의 만남 동안 어르신들과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이 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복지관에 도착하니, 저를 비롯한 실습생들의 한껏 들뜬 모습이 보입니다. 각자 어떤 간식들을 챙겼는지, 아침에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며 나들이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침 일찍 오셔서 출발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시 조금 안되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교통 상황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까 주변엔 온통 산과 들이 보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니 어느덧 우리의 목적지인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으로 곤드레 밥과 된장찌개로 배를 채우고, 청풍호 케이블 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정말이지 장관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앞에서 약속했던 저의 랩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랩이라 어색했지만, 한창 음악을 하며 살던 그 때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8마디의 자작곡 랩을 마치고 나니 어르신들과 실습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들 박수를 쳐주셔서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배움, 소망, 감사 이 세 가지의 주제에 맞게 어르신들의 2019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열심히, 그리고 짧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2019년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했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계속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잔뜩 챙겨 오신 삶은 계란, 포도, 초콜릿, 각종 과자 등의 간식을 보니,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 데도 계속 맛있는 걸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권하는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저희의 다음 만남은 기약돼있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서울로 복귀해서 헤어지는 자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최씨 여성 어르신은 가는 순간까지 저희에게 병 음료수를 챙겨주시며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지식만 채우는 활동이 아닌,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채우는 이런 좋은 활동을 실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준 김태권 선생님과 김진실 선생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젊은 감각과 유머를 갖고 계신 최씨 남성 어르신, 저희를 손자 같이 대해주신 문씨 어르신, 그리고 웃는 모습이 아이같이 귀여우신 최씨 여성 어르신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활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영곤

어르신들과의 첫 번째 만남

어르신들과의 첫 인사에서 과연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혹시나 이야기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나들을 위해서 세워야 하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먼저 친근하게 해주시면서 저희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였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더 많은 장소를 다녀오신 경험으로 세월의 지혜가 느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과 나들이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실습생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긴장을 하고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정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함께 어르신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두 번째 만남

문씨 어르신의 생일잔치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오늘은 너무

뜻 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신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나들이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즐거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마주하고 만날 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당사자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웃음꽃을 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들이까지 남은 한 번의 만남, 나들이를 떠나는 날까지 모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과의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세 번째 만남

첫 만남에서 '어색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어찌지?',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친절하게 저희들을 대해주셔서 일까요? 아니면 저희도 처음에 가졌던 걱정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저희들과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게 잘 했던 것일까요? 어찌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어르신들을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왔고, 만나 뵈니 항상 반갑습니다. 어르신들께 근황도 묻게 되고 어디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됩니다. 가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을 치유하고 올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어르신들도 저희와의 만남, 앞으로의 나들이가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최씨 남성 어르신은 “함께 가서 무슨 일이 있던 즐겁고 무탈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서글 서글하게 말씀도 건네주십니다. 나들이 가는 길에 차가 막히지 않았으면,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과의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올 테니까요.

어르신들과의 네 번째 만남

어느덧 어르신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자 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서로가 함께 챙겨오기로 했던 간식을 챙겼습니다. 혹시나 뭇자리가 필요할까, 상비약도 필요할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 가방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렸을 적 교회에 다니던 때에 성경학교를 가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반 아이들과 함께 갔던 수학여행 이후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간다는 게 정말로 오랜만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4번의 만남으로도 많은 정이 든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나들이라서 더욱 그런 가 봅니다.

다들 손에 가득 가져온 간식 덕분에 오늘은 하루 종일 배가 비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우리들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 간식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에 웃음꽃도 피고, 정다운 이야기도 오갑니다. 어느새 깊은 정이 들어서 그런지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사실에 다들 아

쉬운 마음이 보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만나고 지나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시간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해주십니다. 저희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큼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생들과의 시간에서 '세대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언젠가 어르신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정말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다 행복하고 무탈하기를 빌어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활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용욱

어르신들과의 첫 번째 만남

노인의 집 어르신들은 여성 어르신 두 분, 남성 어르신 한 분 총 세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복지관에서 모이기로 했고 지하철을 타고 또 역에서 복지관 까지 걸어 오셔서 세 분 다 조금 더워하셨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혹은, 우리 실습생들을 만나신다는 마음 때문인지 상기된 얼굴과 약간의 거친 숨소리, 목소리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어떻게 내 소개를 할까 생각했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인생의 선배님들께 오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실습생 김용욱입니다.”라고 간단히 내 소개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실습생들의 소개가 끝날 때마다 시종일관 반갑다는 말씀과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실습생들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6월4일 하루 동안의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어르신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세 어르신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로 선정되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겠다는 문

씨 어르신, 가고 싶은 곳을 이 곳 저 곳 말씀하시며 장소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신 최씨 여성 어르신, 어떤 장소가 나올 때 마다 역사적인 사건과 지명의 숨은 뜻을 말씀 해주시는 유일한 남성어르신이자 프로그램의 팀장님이신 최씨 남성 어르신, 모두 유쾌한 말씀들로 우리 실습생들과 김진실, 김태권 선생님을 즐겁게 웃게 해주셨습니다. 용인, 제천, 수목원, 남양주, 남이섬 등 최종 다섯 개의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다음 주 모임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해 6월4일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행지 장소 하나를 정하는 것으로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대화를 하다 말없는 침묵의 순간이 와서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되면 어찌나하는 걱정은 그저 기우였습니다. 세 분의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그 어떤 세대차이도 느끼지 못했고 간간히 터져 나오는 유머와 위트에 첫 만남의 시간은 내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세 번의 만남이 기대 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두 번째 만남

문씨 어르신의 생신이 하루 지났지만 두 번째 만남의 날인 오늘 생신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 복지관에서 준비한 떡 케이크를 들고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씨 어르신께서는 방문한 실습생들과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 그리고 팀장님인 최씨 남성 어르신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방울토마토, 딸기, 그리고 손수 담그신 모과차

를 주셨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과 준비를 하도록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다과를 들면서 나들이 후보 목적지 다섯 곳을 실습생들과 김태권 선생님이 한 곳 씩 말아서 지난 정리 및 간단히 소개를 했고, 발표가 끝난 후 한 곳을 정하기 위해 투표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곳은 충북 제천 청풍호(충주호)였습니다. 그 곳을 추천한 분은 최씨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추천한 곳이 선정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복지관에서 가장 먼 곳이었지만 어르신께서 직접 추천한 곳이라 기쁜 마음으로 제천을 가기로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목적지를 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렀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2시에 진행되는 복지관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에 참여, 나눔 활동을 하신다고 하여 서둘러 모두 함께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생활하고 계신 여성 노인의 집에는 현재 문씨 어르신과 최씨 여성 어르신 두 분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거실 겸 주방인 벽에는 복지관 행사 때 찍은 플라로이드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은 떡 케이크를 손수 하나하나 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직접 쥐어 주신 문씨 어르신, 그리고 세 분의 어르신들 모두의 행복이 사진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계속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주 세 번째 만남의 시간에는 최종 목적지의 방문 코스, 점심

을 먹을 식당, 그리고 상반기 평가회를 간단히 나눌 장소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 보다는 오늘의 두 번째 만남이 덜 어색했고 더 친근했습니다. 간간히 우리 실습생들에게 고향이 어디며 사는 곳은 어디인지 개인적인 질문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최씨 팀장 어르신은 무엇이든 원하면 자신의 마술 주머니에서 쓱쓱 꺼내 주는 ‘도라에몽’처럼 말씀 중간 중간 유머와 위트 넘치는 한 마디씩을 슬쩍 슬쩍 꺼내 주셨습니다. 유쾌한 어르신이심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주 세 번째 만남과 6월4일 나들이가 기대 됩니다.

어르신들과의 세 번째 만남

이번 주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좀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 복지관에서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모임이라니, 시간은 기다리는 법 없이 오히려 게으른 인간들을 피해 더 빨리 더 멀리 달아나는 듯 보입니다. 첫 만남의 서먹서먹함은 이제 오간데 없고 세 분의 어르신들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세 어르신들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청일점이자 팀장님이신 최씨 남성 어르신은 몸이 불편한 이웃돕기 봉사활동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말씀하시며 한 주 동안 잘 지냈다 하셨습니다. 문씨, 최씨 두 여성 어르신들 또한 외출할 때는 운동 효과를 위해 되도록 많이 걸었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잘 지냈다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실습생들의 근황도 전해드렸습니다. 3일 전인 토요일에 실시했던 ‘청소년 봉사교실 프로그램’에서 각자 맡았던 프로그램 진행 후 소감 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태권 선생님의 서울시 사회복지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단체 해외 연수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짧은 소감, 김진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강화도 여행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소소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낸 듯 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나들이가 당장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와 구체적인 나들이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먼저 출발 시간을 정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발, 9시 출발, 7시 출발 등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복지관에 8시 40분까지 모여 정확히 9시에 출발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도착해서 간단한 ‘노래자랑’도 있을 예정입니다. 김성림 실습생이 노래가사를 쓰고 랩에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고, 어르신들께서도 듣고 싶다 하시어 나들이 갔을 때 들어보자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많이 웃었고 즐거웠습니다.

김태권 선생님은 그동안 나들이 때 마다 가장 좋았던 점이나 이번 제천 나들이에서 꼭 방문하고 싶은 곳 등을 어르신들께 여쭙며 최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실 선생님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메모를 하고 포스트잇 종이에 확정된 의견들을 정리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보드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나들이 계획은 이러하였습니다.

- ① 8시 40분 집합, 9시 출발, 6시 서울 도착
- ② 청풍호를 보며 힐링, 자유로운 2019 상반기 평가회, 노래자랑
- ③ 돛자리, 서프라이즈 간식, 비상금 준비하기

저 멀리 흐릿하게 보였던 나들이 계획이 이제 거울 속 얼굴을 보듯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한 나들이 시간을 세 분의 어르신, 실습생, 복지관 선생님들과 함께 무사히 보내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과의 네 번째 만남

8시 40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시간에 모였고 계획대로 9시에 복지관에서 제천으로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미세먼지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도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김태권 선생님의 안전 운전으로 김진실 선생님이 예약한 제천의 식당까지 11시가 조금 넘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곤드레 밥 정식을 맛있게 먹은 후 청풍호반 비경을 보기위해 비봉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타러 출발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생각보다 굉장한 높이까지 올라갔고 운행 길이도 길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비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늘과 초록이 무성한 숲과 그 주위로 어우러진 호수는 어느 가난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스케치처럼 보였습니다. 제천을

추천한 최씨 여성 어르신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제천 청풍호반의 아름다움, 우리의 나들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성림 실습생의 자작곡 랩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훌륭한 랩 실력에 어르신들과 실습생들, 두 분의 복지관 선생님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비봉산 정상에서 사진도 찍고 풍경을 마음껏 감상한 후 각자가 가져온 서프라이즈 간식을 나누고 '2019 상반기 평가회'를 위해 나무가 많고 계단이 예쁜 카페로 갔습니다. 소소한 서프라이즈 간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니 한가위처럼 풍성했습니다. 카페 내에서는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서울로 출발하는 차안에서 맛있게 먹기로 하고 어르신들과 상반기 평가회 겸 그동안 지내 오셨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의 만남으로 어르신들도 우리 실습생들도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과 낯설음이 사라지고 정이 들려고 하는 시점에 실습이 끝나는 상황이라 모두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최씨 여성 어르신은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30년 만에 부산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며 사람의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것이라 우리도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적어도 적은 만든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이신 최씨 남성 어르신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면 혼자 외롭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젊은이들과 어울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실습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유익하고 즐겁다 표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천으로 향하는 차안에서도 최씨 남성 어르신의 유머와 위트로 즐거웠던 것은 우리 실습생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노래자랑은 없었지만 비봉산 정상에서 김성림 실습생의 랩을 들었고 서울로 향하는 차안에서 문씨 어르신의 노래와 팀장 최씨 어르신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씨 어르신의 노래할 때 목소리는 곱고 예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카페에서 평가회 당시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니 술술 잘 하였고 그것에 더해 노래까지 구성지게 불러주셨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 나오는 7080 노래들도 흥얼흥얼 멜로디를 예쁜 목소리로 따라 부르셨습니다. 문씨 어르신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생신 때처럼 간식으로 가져온 포도를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문씨 어르신의 정을 또한 번 느낀 순간 이었습니다.

계획대로 4시에 서울로 출발했고 6시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아쉬운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잘

살라는 덕담을 듣고 헤어졌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습생들과 함께 했던 네 번의 만남 동안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말씀하실 정도로 젊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신 세분의 어르신을 최씨 어르신의 말처럼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같은 광진구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니 우연히 거리에서 보게 되는 날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차도 한 잔 마시며 오늘 나들이 추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2019년 6월4일, 제천 청풍호반 나들이를 다녀 온 이날은 내 인생 퍼즐 조각들 중 한 조각이 되어 퍼즐 속에 맞추어진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활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정운

어르신들과의 첫 번째 만남

어르신과의 나들이를 위해서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소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을 뵙기 전에는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르신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야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만남 시간을 실습생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동료실습생 모두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중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모두 유쾌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막상 어르신들을 뵙고 대화를 나누니 걱정했던 마음들이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를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셨고, 나들이에 대한 의견도 스스럼없이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나들이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실습생들을 손자, 손녀를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 긴장하고 부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어찌면 나도 모르게 어르신을 단순히 복지관 이용자분들이라고 여겨서 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우리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어르신을 모시고 떠나는 나들이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르신께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담과 걱정은 사라졌고, 나들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르신과 우리에게 모두 유쾌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두 번째 만남

어르신과의 첫 만남보다는 조금은 덜 긴장된 마음으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료실습생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첫 만남에 노인의 집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맛있는 차와 먹을거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 어서 놀러 오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침 문씨 어르신의 생신이기에 떡 케이크와 깜짝 생신 잔치를 준비해 찾아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과일을 사러 가신다며 바쁘게 나오시는 최씨 여성 어르신과 마주했습니다. 최씨 여성 어르신께서 돌아오시고 다함께 들어간 어르신 댁의 달력에는 화요일마다 복지관 모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사회

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사진들이 걸려있었습니다.

문씨 어르신은 생신을 맞이하여 김진실 선생님께서 건네 드린 선물 중 하나는 놀랍게도 블러셔 화장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르신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항상 화장을 곱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께서 우리만큼이나 화요일의 만남에 기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선생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억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나도 당사자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센스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배우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르신께서 제시해주신 나들이 장소에 대한 의견으로 실습생들이 한 곳씩 장소를 맡아서 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습생들도 함께 열심히 조사한 내용들을 어르신들께 소개해드리며 최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꼭 투표해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서 '함께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당사자와 일대일로 함께하는 사례관리의 과정 속에서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과의 만남과 앞으로 함께할 나들이처럼 어르신 중심이라고 하여 오직 어르신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어르신 당사자를 불편하게 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함께하는 한 사람의 참여자로서도 동행한다면 그 진심이 더 쉽게 와 닿지 않을까요? 많

은 고민과 배움이 생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세 번째 만남

어르신과의 세 번째 만남은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으로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르신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대화를 나누었고, 어르신 세 분의 표정에서 나들이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눈 후 나들이에 대한 의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나들이에서는 어떤 점들이 좋으셨는지 먼저 의견을 여쭙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어르신께서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며 시간을 공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실습생이 없었던 지난 나들이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어르신이 얼마나 뜻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들이가 어르신의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의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의견을 붙여놓은 칠판의 포스트잇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총무, 장기자랑 mc 등 나들이에서의 역할도 정해졌습니다. 서로 깜짝 선물도 준비하기로 했

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지 다 같이 대화하는 중에도 눈이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들이를 기대하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저도 벌써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설레고 고민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떤 간식을 가져가면 기분 좋은 나들이의 시작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문득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런 마음가짐이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연속되는 업무에 지쳐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서 마음이 지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드는 마음처럼 진심으로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은 열정과 설렘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네 번째 만남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잠을 설친 후, 세 번째 만남에서 약속했던 대로 아침 일찍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함께 나눌 간식을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근처 마트에 들러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쌀 과자를 골랐습니다.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복지관에는 이미 어르신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찌먼 어르신들께서도 우리만큼이나 설레고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우리 실습생들과

어르신들은 더 이상 처음만큼 어렵고 어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내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최씨 남성 어르신께서 챙겨 오신 간식을 이것저것 꺼내놓으셨습니다. 간식을 챙겨오자는 약속에 가장 열심히 간식을 가져오신 것 같아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간식을 잔뜩 챙겨주시는 듯한 모습에 우리가 네 번 만남을 가졌던 경험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씨 어르신은 가는 내내 어르신께서 좋아하시는 가수, 노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즐거운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실습생인 저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래 전 가수와 노래 이야기라 내용은 잘 알 수 없었지만 듣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도착한 청풍호는 어르신들과 자연을 즐기고 나들이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와 태양 빛이 조금 뜨거웠지만 다 같이 웃으며 경치를 즐기니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어르신들께서도 함께하고 있는 과정을 좋아하시는 듯 보였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 경치를 즐기시는 모습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실습생들끼리의 대화에 어르신께서 자연스럽게 다가오시고 어르신의 대화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가갈 만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들이를 다녀온 당일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때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어르신과의 만남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우리와의 만남에 대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씨 남성 어르신께서는 “내가 가진 전부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씩 자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나눔에 대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씨 여성 어르신께서는 우리를 만나 너무 반가웠고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을 하면서 우리 실습생이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웃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이야기는 저를 몽클하게 하기도, 부끄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나들이 활동을 준비하고 이루시는 과정에 편하게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들이 진심으로 어르신께 와 닿았다는 생각도 들어 감사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고민했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만남의 과정에 있어서 노력하고 고민한 것은 비단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실습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르신과의 만남부터 나들이의 과정까지 실습생으로서 참여해서 느끼게 되었던 감정은 글로 전부를 표현하기에는 그 깊이를 가

느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실습과정에서 뵈게 된 어르신'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그 의미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진심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만남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느끼도록 전달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일이 어렵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가치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씨 남성 어르신의 말씀처럼 이번의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활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태권 사회복지사

만남을 이루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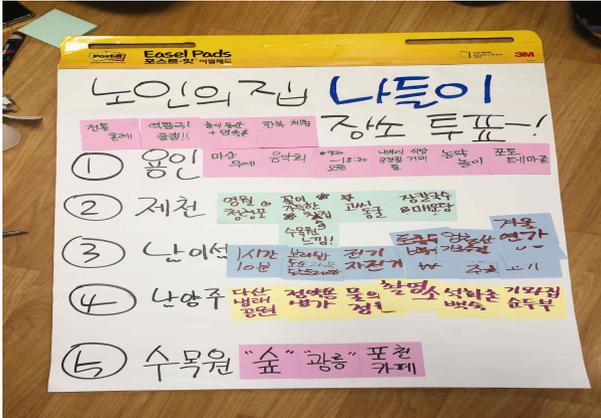
노인의집 어르신들과 실습생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기까지는 실습과정 내 사례관리 영역 담당자로서도 장고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실습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부족한 시간들 안에서나마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 당사자 중심의 뜻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당사자 어르신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정중하게 의견을 여쭙고 미리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 명의 어르신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전 뜻있는 나들이 및 평가회를 함께 계획하고 있던 바, 더욱 잘되었다고 이야기해주시며 기대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남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이루어 가며

일주일여 한 번씩, 총 4번의 만남을 함께하였습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첫 만남부터 나들이 가는 당일이었던 네 번째 만남까지 뜻있는 시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걱정했던 바와 달리, 만남 한번 한번을 모두 소중히 여기고 어르신들의 말씀도 경청하고 소통하는 실습생 선생님들, 새로운 만남의 매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 뜻있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 모두 같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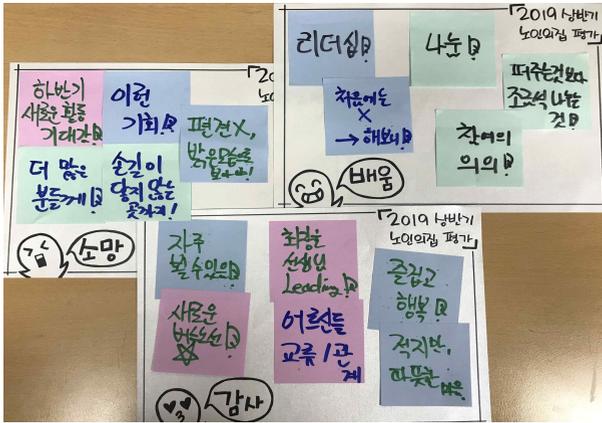
감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선정된 후보지들에 대해서 실습생 선생님들도 각자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회의하며 진행하니 더욱 뜻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어르신들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활동을 계획하고 브리핑이 진행되니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지나가면 그만일지 모르는 시간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조차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귀하게 와 닿습니다.

김진실 선생님과 함께 노인의집 사업을 함께 담당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하나 둘씩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나들이, 평가회, 소소한 활동들 계획과 실천까지 모두 어르신들

께서 스스로의 뜻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합니다. 저희는 그저 그 과정을 소소하게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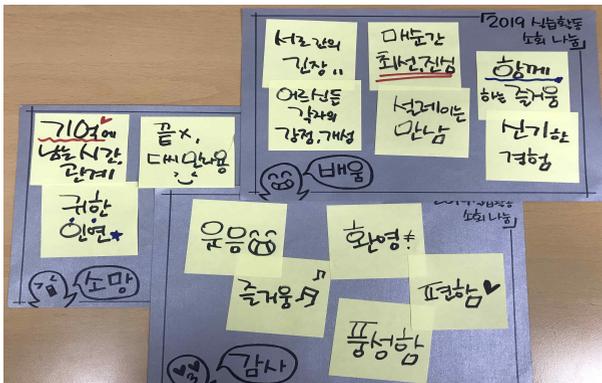


특히, 노인의집 상·하반기 평가회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배움, 소망, 감사라는 조금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주제로 삶의 과정을 함께 나눕니다. 어르신들 스스로의 삶의 귀한 가치를 잘 아시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이번 나들이 활동 안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더욱이 4명의 실습생 선생님들이 함께하니 자리 그 자체도 풍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삶에서 느끼는 소중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저와 김진실 선생님 외에도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어 뜻 깊습니다. 이러한 평가회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처음이라는 실습생 선생님들에게도 각자 모두에게 나름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이루고 나서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에서 돌아오는 길, 문씨 어르신께서 표현해주신 지난 한달 간의 만남의 기쁨, 최씨 여성 어르신께서는 서로 함께해온 시간동안 전혀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다는 말씀, 여럿이 함께해서 더욱 풍성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최씨 남성 어르신의 말씀들 모두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에게도 느껴지는 바가 남다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꾸준하게 만나 뵙고 섬기어 오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항상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습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돕는 관계가 아닌, 서로 소통하고 쌍방향으로 교류하며 동행하는 관계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을 꼭 마음으로 와 닿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소한 무엇인가를 당사자께서 뜻있게 이루는 것이 삶 전체에
서는 결코 소소하지 않음을, 동행하며 소통하는 과정 속 느낄
수 있는 배움과 감사가 언제나 가득할 수 있음을 실습을 통하
여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루는 나들이 활동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진실 사회복지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네 번의 만남입니다. 실습 선생님들이 당사자 중심의 활동을 직접 이루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습과정을 계획했습니다. 작년부터 소소한 활동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노인의집 어르신 세 분에게 여쭙었습니다. 어르신 모두 동의하시며 뜻 있는 과정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해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실습 과정을 공감해주시니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실습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만남이 기대되었습니다.

노인의집 나들이 및 상반기 평가회를 앞두고 세 번의 사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자 노력했던 첫 모임, 어르신의 초대로 여성노인의집에서 생신축하 파티와 더불어 활동 장소를 정하게 되었던 두 번째 모임, 모두의 생각을 모아 활동 시간, 내용, 준비물을 함께 계획한 세 번째 모임까지. 매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어느 한명도 뒤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저와 김태권 선생님은 자리만 주선했을 뿐입니다. 세 번의 만남 안에서 어르신들과 실습 선생님들은 함께 하는 즐거움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모든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생각하며 준비한

깜짝 간식들이 넘쳐났습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진심이 닿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네 번의 만남을 '배움, 소망, 감사'로 되돌아보는 시간에는 저와 김태권 선생님이 진행하지 않아도 어르신들께서 먼저 질문하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형식적인 평가회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소망하신 최씨 여성 어르신, 그저 함께 한 것만으로도 기쁘셨다는 문씨 어르신, 기억과 마음속에 남는 시간이 되셨다는 최씨 남성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이루는 실천의 가치를 배웠다는 실습 선생님들을 보니 그 어느 평가회보다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노인의집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르신들과 만날 때마다 사례관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어르신의 곁에서 삶을 거드는 사례관리자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례관리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습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도 진심을 다해주신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만남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실습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Ⅲ. 기관방문 기록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다녀온 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 김영곤 · 김용욱 · 김정윤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깊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듯, 크고 좋은 시설환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이용시설로서의 느낌, 공공 기관의 느낌도 받았습니다. 헬스, 수영 등의 스포츠 분야부터 시작해서 가야금, 바이올린, 드럼,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등의 교육문화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각 층층마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쉬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 및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지하 1층에는 커피도 한 잔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활동이 함께 하는 카페였고, 사회적인 가치도 추구하고자 하는 카페라는 생각이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었던 곳은 내부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직원쉼터였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냄새도 났습니다. 근무지의 시설도 근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례관리팀 입장현 팀장님, 용도연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실천 부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도 광장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사례관리 실천을 한다는 점입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에서 배우기도 하였던 당사자와 관계중심의 실천이었고, 태화기독교복지관은 그 책을 다른 기관의 사례관리팀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사례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관 등을 확립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례발표회도 열고, 사례집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체로 기록하는 것 또한 비슷하였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공부하였던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타 기관에서도 실천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신기하였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지향점으로 두고, 당사자의 생태·강점·관계에 중점을 두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생태’와 ‘강점’에 주목해서 ‘관계’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관의 방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만의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정의한 사례관리는 ‘기독교 영성에 기반 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개별화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을 돕는 통합적 실천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확고한 생각과 가치관이 묻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임장현 팀장님은 우리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실천’을 ‘성찰’하여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통해 나의 실천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이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록을 잘하려면 학생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그 기관의 사례관리 실천 방법에 대해서 듣고 라운딩을 하며 좋은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관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영곤

저에게는 보통 강남이라고 말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는 '부자들, 비싼 차,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위치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니, 궁금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선택적, 잔여적 의미의 복지에서 포괄적, 보편적 복지로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선택적이고 잔여적 복지의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동네에 복지관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보게 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손진형 선생님과 김태권 선생님에게 들었던 것처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기관을 소개 받는 시간, 사례관리 실천과정에 대한 소통의 시간에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특색,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관 라운딩을 통해서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고 다른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복지관 실습생으로서 새롭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생각보다 이용시설의 비중이 컸지만, 지역 내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부모임을 통해서 배웠던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의 내용을 추구하면서도 이론을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이러한 실천의 방향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색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례관리자와 지역조직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복지팀을 이루어 사회복지와 당사자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당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례관리 실천 사회복지사가 한 팀에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모두 한 뜻으로 당사자를 대하니 당사자도 매번 다른 관점과 접근에 헛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임하게 될지,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경험이 그리고 이번 학기의 실습이 제가 앞으로 사회복지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과 진심으로 실습생을 대해주는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하였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용욱

‘평생교육론’ 교과서에서 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이 현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전신으로서 1921년에 설립되었고, 2021년에 100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방문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비록 길지 않은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생생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남아 그 전통을 지키며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태화복지관이 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복도를 돌 때마다 나오는 일시와 장소가 적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기관방문’이라는 안내판이 우리 실습생들과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임장현 팀장님의 ‘태화의 사례관리 실천 이야기’를 통하여 태화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실천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세진 선생님의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방식의 사례관리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노트에 나오는 황씨 아저씨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태화사회복지관의 사례였다니,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우리 실습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스터디 시간에 나누었던 비슷한 내용들의 고민을 태화복지관에서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내내 반가웠습니다. 실습생들의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주신 임장현 팀장

님의 사례관리 실천 이야기가 끝나고, 용도연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기관 라운딩으로 태화사회복지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복지관의 시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보통 동네에 하나씩 있는 유료 스포츠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를 합쳐 놓은 듯했습니다. 주차장, 예배실, 수영장, 요가실, 각종 평생교육 강의실, 복도 마다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책을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보진 않았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설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규모를 따져 볼 때 최고일 것 같아 보였습니다. 훌륭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 세곡동 이용자 주민들이 잠깐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의 시설, 환경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만큼 개선되어 복지기관이 모든 지역주민을 위한 이용시설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복지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김태권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시설로도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포츠 이용시설이나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이 또 다른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비록 사회복지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에도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섭외에 애써주신 김태권 선생님과 김진실
선생님, 같이 기관방문에 동행해서 알찬 질문들을 많이 해준 동
료 실습생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정윤

사례관리 실습과정 안에서 좋은 기회가 닿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 기관방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태화라는 이름을 ‘최초의 복지관’으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기관 방문을 하기 전 과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회복지관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기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첫인상은 사회복지관보다는 종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업의 건물 같았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관 내부에는 복지관 지하에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매점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느낀 복지관의 이미지는 지역주민의 이용 시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빈 공간을 활용해서 테이블과 의자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당자 선생님을 만나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의 주된 가치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팀장님의 실천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장님의 실천기록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실천기록이 전부 이야기체로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체의 기록방식은 조금은 이상적이고 실천이 어려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관들이 전문가 중심의 실천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의 이야기체 기록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천 기록을 통해서 그 동안 공부모임에서 배운 가치를 현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임장현 팀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가치에 맞게 실천하고 이것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한 과정에 성찰한 내용을 살로 덧붙여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관의 선생님들께서 소개해주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특징은 사례관리와 지역조직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관리가 당사자의 관계와 체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의 도움이라는 점이 주민조직화 사업과 일직선상에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돌레사람과 원활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 공부모임에서 배운 현장의 변화가 가장 크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복지 실무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용도연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기관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 역사에 걸맞게 복지관 곳곳에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러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복지관이 더 이상 당사자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의 기관방문은 사회복지관의 과거를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진구 이외의 다른 권역에 있는 복지관이 사례관리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태권 사회복지사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어떤 곳인지는 이미 학교에서도 많이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사회별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소통하며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야 함께 공부하고 실습하며 배워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지역의 사회사업 활동이 궁금할 수 있는 실습 선생님들에게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복지관은 지역마다 다르다.’,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그곳에 가서 실제 실천가와 소통할 수 있다면 그 뜻이 더욱 다르게 와 닿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기관방문을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우리도 뜻있게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역시 열정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4명의 실습 선생님들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싶은 부분,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미리 회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배우고자 하는 진정성을 느끼니 저도 더욱 뜻있게 준비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용도연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과는 전혀 다른 지역, 업무적 흐름, 실천과정 체계

로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니 더욱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실천가로서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실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팀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실천과정에서의 공감대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다름에서 배움을 찾게 되고 그 시간이 매우 귀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실습 선생님들도 태화복지관의 사업팀, 실천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소통하니 새로운 배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팀들이 하나의 방향성 아래 같은 복지사업팀으로 동행하는 과정, 임대아파트 마을 파견 사업 등 실무자로서도 사회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뜻있는 기관방문을 위해서 적극 도와 주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복지사업2팀 임장현 팀장님, 용도연

선생님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진실 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구조, 방향성, 하는 일 등이 각각 다릅니다. 실습 선생님들이 공부모임을 하며 자주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요?’였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다르면서도 같은 복지관 실천 이야기들이 있음을 전해주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복지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생생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습 선생님들에게 직접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고 싶은 기관명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관방문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알고 싶은지,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우리 복지관과 다른 지역, 다른 체계의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기관방문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복지사업2팀 임장현 팀장님과 용도연 선생님께서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기에 기관방문에 대한 사전 회의를 통해 실습 선생님들의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실습 선생님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사회에서 다른 체계로 뜻있게 실천하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여쭙어보았기에 실습 선생님들의 배움이 더욱 더 크게 와 닿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문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까지 배운 이야기들과 소회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기관방문을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이야기를 듣다보니 2018년 사례관리 실천 공유회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레시피'에서 들었던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천 과정 속에 당사자와 사례관리자 모두가 배움과 감사를 표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와 방향성을 뚜렷하게 세웠으니 당연했던 결과였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가치관으로 뜻있게 실천하고 있는 현장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 새로운 실천 방법들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실습 선생님들 모두에게 건강한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임장현 팀장님과 용도현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V.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 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립 · 김영곤 · 김용옥 · 김정윤

사회복지사 김태권 · 김진실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성림

저는 실습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례관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고, 그냥 사례관리라는 단어와 뜻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뜻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고,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 또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일부분이었고 달랐습니다.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을 통해서는 사례관리자, 동료 선생님들과 공부모임을 하고 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 세 분의 사례관리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직접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도 해보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저에게는 처음이었고 새로웠습니다.

사례관리 실습을 하며 중요하게 느낀 점은 사례관리자는 당사자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분들은 약자이며 더 높은 위치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첫 번째 시간에는 정유정 과장님과 함께 ○○동에 위치한 당사자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정유정 과장님, 당사자와의 소통을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과장님은 당사자의 말벗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절대로 가벼운 마음,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꾸준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례관리는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해서 당사자와 마주보고, 상담 기록지를 앞에 두고 빈 공간을 적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당사자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정 과장님은 당사자와의 계속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례관리는 항상 심각하거나 안타까운 분위기가 진행되거나, 혹은, 항상 숙연하고 진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건, 곧 저의 시야를 넓혀주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분들과 대화를 하며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내 생각을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욕구를 갖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 내 시야도 넓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후반기 사례관리 실습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활동은 공부모임과 기관 방문,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생태’와 ‘관계’입니다. 당사자의 문제나 욕구를 당사자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당사자 주변 환경 및 관계 위주로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곧 다른 사람의 인생과 엮여있으니 말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잘 파악하려면 당사자의 주변을 잘 둘러보아야 합니다. ‘강점’ 부분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사자의 문제나 욕구를 사례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강점’을 이용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례관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고 긴 사례관리 실습 활동을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이었고, 많은 과제들로 인해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의 진심과 그들의 열정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활동 실습이 끝나고 나니까 머리와 마음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책을 통한 공부모임과 기관방문, 민·관·학 협력활동 교육을 들은 것들은 저의 머리에

넣었고, 노인의 집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교류하며 나들이 활동을 이루었던 기억은 저의 마음 안에 넣었습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갖게 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실습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쏟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의 땀에 대한 감사함은 몇 번을 언급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실습을 통해서 배운 많은 것들을 오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영곤

실습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둔 지금, 어느덧 이번 학기 중 실습 사례관리 실습과정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례관리 스터디, 그리고 사례관리 과정 실습은 저에게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활동할 제가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졌던 사례관리 실습은 김태권 선생님과 함께 하는 사례관리 과정 실습이었습니다. 옆에서 김태권 선생님이 당사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 대화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진심이 담긴 행동이 당사자의 이야기와 욕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당사자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반증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졌던 사례관리 실습은 저와 김정윤 실습생이 처음으로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 어르신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습생끼리 나가는 실습이라서 긴장과 걱정이 앞섰지만, 당사자야말로 본인의 이야기를 처음 보는 저희에게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되고 걱정이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라도 이런 부담과 긴장을 털어놓고 당사자를 만나야 시간이 더 편안하고 좋은 기억

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긴장감과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졌던 사례관리 실습에서는 김용옥 실습생과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와의 이야기를 즐거워하시고 먼저 말을 건네어 주시는 당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의 꽃은 사례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학문이라서, 누가 더 낮고 더 못났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복지사로서 당사자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기에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의 꽃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실습의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는 요즘, 시간이 정말로 빠르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후반기의 사례관리 실습과정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애 동사무소 앞이나 골목길, 대로변에서 마주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차량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민·관 통합 사례관리란 무엇인지 말로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관 사례관리 회의를 직접 참관해 보는 시간은 매우 뜻 깊고 큰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집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가장 큰 배움이었고, 즐거움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보았던 글귀처럼 처음의 어색한 순간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도, 맛있는 걸 나눠먹는 순간도, 함께 나들이를 가서 사진을 찍는 순간도 어느 하나 눈부시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헤어짐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을 항상 끝에 가서 알게 된다는 게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모든 만남이 설렘으로 가득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덕담처럼 어디에서도 멋있고 당차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용욱

네 번의 사례관리 공부모임과 세 번의 사례관리 현장실습이 포함된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통해 배운 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낯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생각만큼 어렵거나 두렵고 긴장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창한 '상담'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날씨 얘기로 시작하는 일상의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사회복지 사례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 만남의 연속인 삶의 여정이 끝날 때 까지 내 머리와 가슴속에 문신처럼 남을 것입니다.

둘째, 부양의무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복지 당사자들은 모두 70, 80대의 독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기초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부양의무포기신청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신청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자녀들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부모에게 연락 두절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설령 미운 부모라고 해도 자식으로서 부양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정과장님의 말씀이 저의 뒤통수를 때린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 사례관리 현장 실습 전 사례관리 스터디를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례관리의 개념, 당사자의 욕구, 활용 가능한 자원, 초기 면접의 경험, 초기 면접에 대한 성찰,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까지 미리 공부를 하고 공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사례관리의 기준이 나뉠 수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노트의 내용이 사례관리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례관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실습 중인 저에게는 분명 좋은 지침서입니다. 실습이 끝나도 '공부노트'는 틈틈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은 사례관리 공부모임, 초기상담 및 재상담, 사례회의, 과정기록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은 노인의 집 어르신들과의 네 번의 만남 그리고 나들이를 함께 계획하고 이루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실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소소하게 생신 파티를 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나들이 계획을 하는 시간들이 설레고 즐거웠습니

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여행 계획을 짜본 일은 저에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아닌 20대 대학생들 30대의 직장인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는 말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마련이고 변화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건 차이가 나는 세대의 간격과 다름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세대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에서 만난 어르신들 세 분과 실습생들 네 명 사이에 세대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 어르신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며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연륜이 묻어있는 젊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나 보다 어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인정해 주는 어른으로 계속 성장해야겠다고 어르신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내며 다짐했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을 할 때만해도 사례관리 실습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초기상담, 재상담, 사례회의, 과정기록들, 타 기관 방문, 어르신들과의 나들이 등은 생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실행해 나아갈 때 마다 처음이라 설레

고 긴장됐던 마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익숙함이 초심을 잠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어땠는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례관리 실습이 가장 유익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체화했습니다.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 두 분의 이름도 잊지 않겠습니다.

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정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말로만 듣고 공부하던 사례관리 과정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례관리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늘 꿈꿔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들뜬 마음으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당사자분들과 함께 봉사하고 실습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떤 표정과 태도를 보여야 할지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만나 뵈어르신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등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달 실습생인데 어르신 당사자분을 만나 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뒤로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어르신 덕으로 초기상담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의 의뢰서를 꼼꼼하게 읽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당사자 분께서는 지친 몸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삶에 대해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지혜,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진실 선생님은 어르신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첫 면담을 마치고 어르신 덕을 나았을 때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삶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나마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누락될까 걱정되어 필기도구들을 챙겨갔지만, 필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례관리 스터디 시간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한다면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삶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라고 배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진실 되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문하고 당사자의 답을 들으며 그 삶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뵈는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 이야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동료 실습생과 함께 재사정 상담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분과 만남의 시간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마주 앉았지만, 미처 어르신과의 마음과는 마주 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것을 여쭙볼지 고민하느라 진심으로 어르신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실례를 범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부담과 긴장이 풀어질 때쯤 어르신께서 반려견을 대하시는 표정에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와의 대화 중 찾을 수 없었던 밝은 미소였습니다. 공부모임 시간에 배운 피해야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질문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비로소 어르신의 표정과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어왔고,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태도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어르신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몇 가지 여쭙본 것이 없어서 사례관리 과정 서

류의 작성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와 어르신과의 대화를 돌이켜보니 어르신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굳이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면 당사자 삶의 이야기를 하나 둘씩 나누게 될 수 있다는 말에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사례관리 실습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사례관리자로서 교육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넘어서 당사자분과 함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따뜻한 마음, 존중과 배려, 진심 어린 공감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예비 사례관리자를 준비하는 실습생으로서의 경험이 사회복지와 사례관리에 대한 가치를 굳건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부족한 우리를 환대해주시고 삶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 주신 어르신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후반기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하며

전반기의 사례관리 실습과정이 사례관리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며, 성찰하는 과정이었다면 후반기의 사례관리 실습은 함께와 진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과의 만

남, 나들이는 처음 실습일정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걱정되던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과연 어르신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나들이 과정에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어르신을 뵈었을 때도 확신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실습생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어르신들로부터 나눔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실습생으로 만난 모든 어르신들과 당사자 분들에게 나의 행동이나 말이 실례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들이를 함께 떠난 어르신들 삶 속에서 가끔씩 꺼내어 보면 좋을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모습과 지혜에서 많은 것을 배워간 학생들이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례관리 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간직하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던 진심을 다해 어르신을 대하고 당사자 분들을 만났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나 자신에게 바랍니다.

부족한 실습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어르신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습생과 함께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관리의

과정을 더욱 가까이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실습의 과정 전반에서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셨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고민, 소통과 배려가 있었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습 속에서 항상 웃음을 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동료 실습생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 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태권 사회복지사

이곳 광장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복지관 현장실습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관리 영역을 맡아서 꾸준하게 진행 하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나름 긴장도 많이 하였고, 계획 하나 하나에 더욱 신중하였습니다. 함께 담당하고 있는 김진실 선생님과 의 끊임없는 준비, 사전연구 및 개인적인 학습과정, 부서장님으로부터의 슈퍼비전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실습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가치, 어디서 실습과정 사례관리에 대해 배움을 이야기 할 때 제대로 배웠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사례관리자로서 뜻을 펼치게 된다면 함께한 이 시간들이 소중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4달의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지났습니다. 실습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마무리하려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정리해야할 생각도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실습생 선생님들에게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이지만, 저 또한 그 안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많이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순간들 모두가 저에게는 매우 귀하고 뜻 깊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조금 먼저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지난 시간들을 동행해온 동료로서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 합니다.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마무리 하며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김진실 사회복지사

이번 사례관리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3년차에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실습 과정이었고, 기관 차원에서도 현장실습에 사례관리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긴장되었습니다. 김태권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계획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는 만나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실습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나도 현장의 사례관리를 실천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례관리가 즐겁게 느껴질 수 있기를,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과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행연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며 마련하였습니다.

저희의 준비와 계획이 귀한 실습 선생님들을 만나 잘 이루어졌습니다. 실습 종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실습 선생님들은 사례관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사례관리 실습과정이 때로는 벅차기도 했지만 함께하길 잘했다며 기뻐합니다. 저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심을 보며 저의 초심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지금과 같이 열심을 다한다면 어떠한 현장에서 무슨 실천을 하게 되어도 뜻 있게 이루어 낼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함께 활동한 어르신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사례관리 실습과정을 통해 보고 느끼고 배웠던 모든 초심을 잃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V. 에필로그 : 예비 사회복지사를 응원하는 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배은정 과장

사례관리팀 정유정 과장

수퍼바이저로서 예비 사회복지사를 응원하는 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 배은정 과장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 느꼈던 기대와 설렘이 얼마나 충족되었을까요? 선생님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실습기간에 배운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여 실습 수퍼바이저로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부담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현장을 즐기는 모습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록한 많은 글 중에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부분이 있어 선생님들의 생각과 바람이 실천되길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김영곤 선생님, “선입견 없이 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

김성림 선생님, “우리의 기록이 당사자 삶의 한조각 이기를 ...”

선생님들의 다짐처럼 당사자 분들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왜 사회복지사의 길을 선택했는지’, ‘어떤 가치를 둔 사회복지사이고 싶은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슈퍼바이저로서 예비 사회복지사를 응원하는 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정유정 과장

처음에도 빛났고, 지금도 빛나고, 내일도 빛나는 2019년 광장의 학기 중 실습생 김성림·김영곤·김용욱·김정운 후배님들 20주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놓치지 않고자 안간힘을 쓰던 모습들, 꺾꺾 눌러가며 정리하던 필기의 손길들이 기억납니다. 사례관리 OT, 통합사례관리·구의 광장권역 주민센터 선임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한 학습 모임 등의 교육, 슈퍼비전 과정, 함께 상담을 하고 사례회의를 진행하였던 모든 시간 안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줬던 열정들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퇴근을 위한 즐거움의 목소리가 기억됩니다.

길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같은 생각들을 이루고 공공의 선을 향하여 함께 걷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들이 다양해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길이가 지식과 경험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후배님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사람을 향한 진실 된 시선, 서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과 고민에 대한 존중,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어느 길에 서 있던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실습 진행과정에서 ‘어차피 하는 것 진짜 잘 해보자!’라는 열정이 뭉쳐서 지역복지사업과 사례관리사업의 대다수의 실천과정을 함께 하였고 이렇게 실천기록까지 작성하게 되었기에 실습생들의 부담은 참으로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실천하였던 김태권, 김진실 선생님도 그러하였을 것이고, 코디네이터를 진행하였던 손진형 선생님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열정들이 모여 소중한 책자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기에 20주간의 시간들이 선생님들에게 힘들지만 즐거웠던,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다같이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

2019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실습과정 기록

지은이 김성림 김영곤 김용옥 김정윤 김태권 김진실

인쇄 2019년 6월 14일

펴낸곳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역은이 김태권

연락처 02-2201-1333

홈페이지 www.gj.or.kr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gj.or.kr) 등 온라인 상 PDF 파일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출처를 밝혀주신 후 파일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본 기록을 다른 도서 및 자료에 활용 시, 사전에 본 기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